

남자 독백 (세가지 모두)

1. 이 도시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 나는 바다로 갈거야. 친구들은 책상 앞에서 계산기나 두드리며 하루종일 숫자만 들여다 보지만, 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보다도 더 부드러운 바다로 갈거야! *(잠시 쉬고 이어서)* 낸터킷을 떠난 후 며칠동안 선장은 갑판에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불침번에 의하면 모두 잠든 밤이 되면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쿵쿵대며 혼자 서성거린다고 한다. 그래서 배를 지휘하고 있는 건 선장이 아니라 항해사들 같다. 항구 사람들 말대로 저 신성해보이는 선장실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독재자일까?

2. 고래가 무섭지 않다고 큰소리치려면 배에서 내려. 자만하는 놈은 필요없어. 단단히 일러둔다. 고래는 우리가 탄 배를 단번에 부숴버릴 수도 있을만큼 강하다. 두려움을 모르는 놈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보다는 차라리 겁쟁이가 낫지. 가장 좋은 놈은 위험과 마주했을 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녀석이다. 알겠나? 절대 무모하게 덤비지 마라.

3. 전쟁이라면 전쟁이지. 하지만 진짜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병사들은 아가씨들의 환호를 받지만 우리는 그저 백정 소리나 들을 뿐이야.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고래를 죽이는 쪽이 나아. 고래는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거든. 고기에 기름에 뼈까지 전부. 하지만 사람을 죽이면 얻는 게 뭐지? 우리는 사람을 살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고래를 잡는데 육지에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게 전쟁질이지. 아무리 큰 명예가 달려있다 해도 나는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아.

여자독백

실연을 당해 슬픔에 빠져있는 친구를 위로하는 형식의 1분짜리 창작 모놀로그